

용산구, 설 맞이 용산사랑·땡겨요상품권 총 105억 원 발행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구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105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100억)’과 ‘용산땡겨요상품권(5억)’을 발행한다.

구는 상품권 발행을 통해 할인, 환급(페이백), 쿠폰 등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100억 원 규모의 ‘용산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5일 오전 9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판매된다. 용산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5% 할인이 적용된다. 1인당 월 구

매 한도는 5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310억 원 규모의 용산 사랑상품권이 전량 판매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도 조기 소진 이 예상된다.

서울시 배달전용상품권인 ‘용산땡겨요상품권’ 5억 원은 2월 3일 오전 10 시에 발행된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용산구 내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15%의 높은 할인이 적용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20만 원,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땡겨요’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배

달 서비스로,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각종 할인과 쿠폰 제공으로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용산땡겨요상품권’에는 추가 혜택도 있다. 상품권 결제 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용산구 5% 환급(페이백)에 더해, 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5% 환급(페이백)까지 중복 적용되어 최대 25%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용산땡겨요상품권으로 2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2천 원 할인 쿠폰도 즉시 지급된다.

“2026년 첫 개장”...영등포구, ‘설맞이 상생장터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청 앞 광장에서 ‘설맞이 상생장터’를 개장해, 명절 준비에 나선 주민들에게 풍성한 장보기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생장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로 관내 전통시장·소상공인과 친선·협약도시가 함께 참여한다. 올해 첫 상생장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청 앞 광장에서 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장한다.

이번 장터에는 ▲영등포전통시장 ▲영등포과거시장 ▲영일시장 등 관내 전

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강원 양구 ▲경남 고성 ▲충남 청양을 포함한 친선·협약도시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장터에서는 각 지역에서 온 우수한 상품을 직접 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한우·감·미역·과일 등의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명절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소상공인 우수제품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상생장터에서는 2, 4일차에 버스킹 공연을 준비해, 장터를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방문한 주민들이 즐

거운 명절 분위기를 즐기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상생장터를 운영해 총 551개의 점포가 참여하고 약 9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생장터는 주민들에게는 합리적인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상생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7기 모집...청년이 직접 정책 기획한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청년네트워크’ 7기 위원을 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올해 7기는 청년 정책 리빙랩과 청년의 날 행사를 연계하는 운영 방식을 도입해 정책 아이디어의 현장성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남구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참여기구로, 올해로 7년 차를 맞았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뒤,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리빙랩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청

년이 낸 아이디어가 제안서로 끝나지 않도록, 과정 중심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직장·학업 등으로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모집 인원은 30명 이내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선발된 위원은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한다. 활동은 리빙랩 기

획 워크숍으로 시작해 ▲청년의 날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표·체험 공유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활동 ▲성과 공유로 이어진다. 구는 청년들이 기획·설계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 6기에서는 인스타그램 ‘gangnam.youth’ 채널 운영과 개인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 공공심야약국, 심야 의약품 공백 메웠다

공공심야약국(22시~익일 01시) 25개 자치구 39개소 운영...365일 운영 28곳

2025년 한 해 총 249,029건 판매 실적 기록...비처방약 79.5%, 처방약 11%



늦은 밤 문을 여는 서울시 공공심야약국이 지난해 24만 건이 넘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 잡았다. 이용자의 79%는 비처방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았고, 해열·진통제가 가장 많이 판매됐다. 서울시는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9개소를 운영하며, 심야 시간대 의약품 이용 편의를 이어간다.

서울시는 늦은 밤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25개 자치구, 총 3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365일 운영되는 약국은 28곳, 요일별로 운영되는 약국은 11곳이다. 요일별 운영은 월·수·금 등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공공심야약국의 판매 실적은 총 249,029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시간대는 ▲22~23시 39.9% ▲23~24시 33.4% ▲24시~익일 1시 26.7%로, 심야 전 시간대에 걸쳐 고르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전체 이용 건수는 평일 이용이 161,765건, 주말·공휴일이 87,264건이었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일 662건, 주말·공휴일 721건으로, 주말·공휴일에 시민들의 약국 이용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목적의 대부분은 비처방약 구매였다. 전체 이용 중 비처방약 구매가 197,871건(7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처방 조제 목적 방문 27,379건(11.0%), 건강기능식품 등 기타 구매 23,779건(9.5%) 순으

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으로 볼 때 남성은 13만5953명(54.6%), 여성 11만2942명(45.4%)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 8만5899명(34.5%) ▲20대 5만3613명(21.5%) ▲40대 4만9738명(20.0%)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 활동이 잦은 경제활동 인구나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큰 연령층에서 공공심야약국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만5405건(1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대문구 2만702건(8.3%), 광진구 1만9510건(7.8%), 양천구 1만7888건(7.2%), 강서구 1만7209건(6.9%)이 뒤를 이었다. 상위 5개 구가 전체 이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송파구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 이다.

시는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손목다터9988’ 앱 등 여러 채널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창 시민건강국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늦은 밤에도 시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고 복약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라며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내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성 기자

대출금리인 1.75%로 동결, 사회적경제기업 금리 부담 완화

지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 ‘종합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별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출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최종 지원 여부와 기업당 융자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판단 정보, 국제·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seoulshinbo.co.kr)에서 ‘종합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연내 자금 소진 시까지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이용하면 된다.

이창성 기자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동북권 물류복합개발로 강북전성시대 뒷받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26년 1월 28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40년간 물류터미널로 지정되어 타 용도로의 개발이 불가능해 지역 침체가 가속되어 ‘22년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계획 마련 및 ‘23년 결정고시 완료했으나, 지하 화물터미널의 운용 효율성 개선 등을 위한 민간사업자 제안에 따라 ‘25년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개발계획(안)을 재검토 및 보완하였다.

금번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후면 지상부의 개발밀도를 축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배치하고 지상부는 7,140㎡의 대규모 입체녹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활력공간을 마련하고 화물차량 진입동선 개선 등 물류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기존 평균 개발밀도는 용적률 565%에서 금번 용적률 433%로 개발규모를 대

폭 하향하였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고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 및 지역권 설정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였다.

입체녹지 내에는 동대문구 복합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채로운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전용 E/V, E/S, 슬로프 등 9곳의 다방면 접근동선 계획을 통해 보행객의 접근성을 중점 고려하였다.

서측 배봉산과 동측 중랑천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입체녹지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자가 중랑천 인접 부지에 약 50억 원 규모의 ‘(가칭)펜스테이션’을 추가 조성해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랑천 뚝방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체육·문화·여가 거점인 ‘펜스테이션’을 조성할 계획이다.

‘펜스테이션’은 민간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최초 사례로 중랑천에서 즐기는 러닝, 자전거 이용자들의 편안한 쉼터 역할

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시설은 주민설문조사 용역 결과 및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 연면적 약 5,800㎡의 대규모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

‘24년 동대문구 주관으로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의 용도를 반영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지상 1~2층 저층부에 공간을 마련하였다.

입체보행교 조성, 수변데크 등 중랑천 친수공간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성 및 확실성을 강화한다.

지역주민들의 중랑천 수변공간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해 중랑천 친수공간 계획을 유지하나, 현금으로 조성방식을 변경하고 서울시가 직접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제로 제도 도입 및 공개공지 계획하고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세대 공급을 통해 사회적 주거여자를 지원한다.

이창성 기자

